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 날

# “30분도 안돼 환승했는데 요금 또 결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날인 21일,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따른 환승 불편과 여전히 난폭운전, 홍보 부족 등이 시급한 개선책으로 떠올랐다.

◇환승 어려웠다=광주시는 기존 77개 시내버스 노선을 생활권 중심으로 86개 노선으로 확대하면서, 시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급행 5개·간선 19개·지선 62개 노선으로 재편했다. 여기에 마을버스 13개 노선과 지하철 1개 노선을 합쳐 총 100개 노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승객은 물론 버스 기사에게도 환승은 어려웠다.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을 연결한 '복잡한 환승 체계' 만들어지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최단거리로 빠른 시간에 가는 것은 '고등수학'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상당수는 새 노선 버스에 탑승하기 전 운전 기사에게 종착지나 자신의 목적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고, 이 중 일부는 승강장에서 안내 책자를 나눠 주는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운전 기사들은 자신의 운행 노선 외에 다른 노선에 대한 환승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 하는 직장을 가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만, 낯선 곳을 갈 때는 어김없이 혼동을 겪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냈다.

지하철-마을버스 간 환승도 허점이 드러났다. 취재팀은 이날 오후 2시50분 동구 관산동 '문화의 전당 역'(옛 도청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운전역'에서 내렸다. 약 3분을 걸어가 '(구) 삼양사' 앞에서 760번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가 터를 리터기에 대해 '빠~' 소리와 함께 '95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지하철을 탄 지 30분이 채 안 됐지만, 무료 환승이 안 된 것이다.

마을 버스 운전사는 "카드 리더기는 작동되지만, 무료 환승은 아직 안 된다"면서 "마을 버스 7대 중 2대만 제대로 작동하고, 나머지는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선은 아직=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



몇 번 버스 타야 하지?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 21일 오전, 승강장에 나온 시민들이 환승 방법을 찾기 위해 노선 안내 전단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난폭운전 등 여전...배차간격 제대로 안지켜 “버스 한 번 타보고 노선 바꾸지” 불만 폭주

되는 부분이 서비스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반 시민 대다수는 아직 느끼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들은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무뎠답하게 “모르겠다”라고 답변하기 일쑤였고, 급출발·급정거도 여전했다. 급행 간선인 '순환 01'번에선 짐을 들고 막 승차한 승객이 급발차 때문에 넘어질 뻔한 상황이 자주 눈에 띄었다.

새로 설치한 버스 안내 표지판은 기존의 표지판과 겹쳐 혼란을 줬으며, 일부 표지판(백운광장)은 벌써 훼손돼 있었다. 환승이 많은 전대사거리 승강장의 노선도는 정차하지도 않은 '진월 07'번이 경유하는 것으로 나와있기도 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1일

오전 8시50분께 '남광주농협' 승강장에서는 '순환 01번' 버스 2대가 한꺼번에 정차하기도 했고, 30분 이상씩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았다.

주부 이정희(여·55)씨는 “평소 나주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들 버스 기사들은 너무 친절해 광주 버스와 비교됐다”면서 “앞으로 광주 기사들에게도 이 같은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만폭주=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는 21일 오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환영하기 위해 접속한 시민들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상담 전화 10대(613-5700)도 폭주하는 문의로 통화 중일 때가 많았다. 시 홈페이지는 이날 하루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항의 글 300여 건이 게시됐

고, 항의 전화도 빗발쳤다.

시민들은 “시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버스를 타고 노선을 변경했으면, 이렇게 고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고, 특히 광산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광주시내로 오기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광주역으로 갔던 김은지(여·20)씨는 “환승이 자유롭게 된다고 해 쉽게 목적지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버스 기사도 노선을 몰라 결국 택시를 타야했다”고 말했다.

아이디 '소야짱'은 “나도 공무원이라 민원인 때문에 난처한 적이 많지만 이번 노선 개편에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첫날부터 지하철과 마을버스 승객이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등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안정한 노선안내, 환승 정보 부족 등 미흡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겨울 추위 주춤 12월 22일

(음 11월 3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1~10℃
부산	구름조금	1~9℃
대구	구름조금	4~11℃
대전	구름조금	2~11℃
전주	구름조금	-4~12℃
목포	구름조금	-3~11℃
해운대	구름조금	-4~11℃
인천	구름조금	-2~12℃
안동	구름조금	-4~12℃
울릉도	구름조금	-1~11℃
독도	구름조금	-1~11℃
제주	구름조금	-4~10℃
서울	구름조금	-1~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2:42 썰물 < 08:07  
여수 밀물 < 10:24 썰물 < 16:31

▲해돋이 07:37 ▲해질 17:24 ▲달출 09:14 ▲달몰 18: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날씨						
최저/최고	0/11	1/10	0/11	3/10	2/9	1/9

### ■ 광주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

광주지역 다방 여종업원 10명 중 3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인 10명 중 9명이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12월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다방(휴게음식점)은 총 960여 개 업소로, 이 가운데 400여 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약 30%는 미성년자

## 다방 여종업원 10명 중 3명 미성년 시민 72% “티켓 영업 신고 하겠다”

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5월 26일부터 올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지원센터에 접수된 다방 청소년 불법고용이나 불법영업(티켓영업)에 관련된 상담자는 총 81명이었으며, 이 중 96%인 78명이 다방에 취업할 수 없는 청소년이었다. 지원센터가 또 광주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홍)와 공동으로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6.2%가 “광주가 ‘미짜(미성년자의 속어)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매

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38.8%가 부끄럽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0%가 ‘주변 티켓다방 때문에 언짢았다’고 답했으며, 97.5%는 ‘미성년 고용을 통한 티켓영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지역민들이 티켓다방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을 고용, 차매달을 시키거나 티켓영업을 한 다방을 신고

### ‘BMS’로 본 운행 상황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Bus Management System)은 광주 시내버스 운행에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민자 30억원이 투입돼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설치됐으며 배차간격, 승객, 최다 환승 노선, 승강장 등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BMS에 따르면 첫날인 21일 오후 4시30분 현재 버스 이용승객은 18만8천 703명으로 평일 수준을 약간 상회했다.

### 최다 승차·환승 승강장은 대광여고앞

앞 뒤차간 간격이 10분대인 버스는 86개 노선 중 46개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최다 승차·환승이 이뤄진 노선은 살레시오고를 출발해 일곡~두암~봉선~포암지구 등 광주 최대의 주택가를 관통하는 ‘일곡28’번이었다. 이 시간까지 승차·환승 승객은 7천 997명이었다.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승강장에서선 1천376명이 승차해 최다 승차·환승 승강장이 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BMS와 연계한 승강장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도 들여온다. 시내 주요 승강장 200곳에 설치해, 시민들이 탑승해야 할 시내버스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ARS(전화서비스)로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BMS.

## 명품 산우 전문점 한우삼형제

생태가 직접 기른 한우삼형제

한우 삼형제의 한우를 최상의 노쇠로 양육하고 최상의 사육을 통해 최상의 한우를 생산합니다.

1. 양질의 한우를 생산합니다. 2. 양질의 한우를 생산합니다. 3. 양질의 한우를 생산합니다.

전화번호: 010-3100-1110

##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대모집

토익만점 = 토플만점

www.ibtenglish.com

062) 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 메가퍼스트학원